



군종주보

2020년 9월 20일(제1000호)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시제외 상 장하상 비오로외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강론을 시작하며 교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의 길’과 ‘고통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단 하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에게 위의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영광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고통의 길’을 따르는 것에 있다면 교우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래도 ‘영광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103위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순교 성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 덕분에 하느님 안에서 ‘신앙의 생명’을 싹틔우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순교의 월계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 안에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 다가가 봅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 정신을 본받아,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봉헌하였으면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저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이 하루가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연설하신 한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느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위탁합시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과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윤상(토미스 베갯) 신부
중령 103위 성인(37시탄)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지혜 3,1-9

회 담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특 시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루카 9,23-26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허인백 아고보



성인명: 허인백 아고보 (許仁伯 James)

신분: 농부, 순교자

활동연도: 1822-1868년

허인백(許仁伯) 아고보는 1822년 경상도 김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언양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다가 24세 때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으며, 아주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여 교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허 아고보는 아내 박조예와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정결을 지키고자 아내와 남매처럼 살았으며, 고신 극기는 물론, 겸손과 인내의 덕을 쌓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또 애궁에 힘써 가난한 이와 병든 이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1860년에 경신박해가 일어난 뒤, 허 아고보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무수히 매를 맞고 언양으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천주교 신자임을 뚝뚝하게 고백하였다. 그리고 옥에 갇혀 50여 일을 지낸 뒤에 경주로 이송되었으며, 이곳에서도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기에 8개월을 옥에 갇혀 지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박해를 중단하라는 임금의 명에 따라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허 아고보는 울산의 죽령(현, 경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속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양등 베드로 회장과 김종륜 루카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고, 나무 그릇을 만들어 팔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처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목상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자주 순교의 원의를 드러 내곤 하였다.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체포되었을 때도 죽령 교우촌은 비교적 안전하였다. 그러나 2년 뒤인 1868년에 포졸들이 마침내 죽령 교우촌을 찾아내게 되었고, 허 아고보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로 끌려갔다. 이때 그는 가족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리고 바르바라 성녀의 순교 행적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하고 당부하였다.

경주 진영에 이르자, 곧 문초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허 아고보는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였을 뿐, 천주교 서적이 있는 곳을 대거나 다른 신자를 밀고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관장은 화가 나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내 그의 몸에서는 피가 나고 다리뼈가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허 아고보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신앙을 증언하였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경남 울산시 중구 남외동)로 끌려나가 이양등 베드로 회장과 김종륜 루카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8년 9월 14일(음력 7월 2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순교 당시에 허인백 아고보는 십자 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하며, 그의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아내에 의해 거두어져 비밀리에 안장되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대가 거기에 있어



그대가 거기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

숨 쉬며

서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대가 거기에 있어.

그대가 거기에 있어.

상화이야기

바르톨로메오 성인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산 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묘사하는 많은 작품이 남겨졌는데, 밀라노의 두오모 주교좌 성당에 있는 본 조각상은 자신의 벗겨진 피부를 들고 서 있는 성인을 보여주고 있다.

미르코 디' 그레이트
1562년 제작
두오모 주교좌 성당
밀리노

해부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묘사된, 피부가 벗겨져 힘줄과 근육만으로 관객을 형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작품은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다. 조각상의 뒷부분을 보면, 어깨에 걸쳐진 자신의 피부에서 성인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조각상 뒷부분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순교자 대축일: 육군본부 박근호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